

지역 이미지 표현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 개선방안 -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중심으로 -

최계영*

요약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는 도시환경조성이 도시의 생명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행됨으로써 지자체의 활성화와 자립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여러 방안의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여 지역 고유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안동시에 설치되어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고유의 이미지표현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의 활발한 설치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통한 지역민자부심고취를 통한 지자체 발전에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적용사례가 늘어나 새로운 지역이미지 표현의 방법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Street environmental facilities improvement plan for regional image - Concentrate in city of Andong environmental facilities -

Gae-Young Choi*

Abstract

Increasing concern of urban community environment with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in modern generation, forcing us to recognize city's environment composition causes important factor for city's spirit. Since implementation of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1995, local governments are thrives local government activation, compositing financially self support local government and competitiveness by others seeking number of methods for establishing traditional local images. In this study, analyzes cases in street environment facilities to help and support local government developing and applying special features of historical and cultural local images toward street environment facilities in city of Andong. For expression of local image in active installation of street environment facilities will increase tourism and extra value creating self esteem of local people will endures further rapi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eriously consider continuously supporting investment and research in street environment facilities.

Keywords : Street environment facilities, linkage, unity, Identity , human scal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일저자(First Author) : 최계영

접수일자:2007년04월11일, 심사완료:2007년06월27일

* 경남정보대학 스페이스디자인계열 교수

black0221@naver.com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져감에 따라 현대인의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현대인들은 도시환경조성이 도시의 생명력에 중대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도시환경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이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 지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 도시환경시설물이라 일컬어지는 가로환경시설물

은 단순히 환경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거주자들의 실용적·심미적 목적을 만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995년 지방자치체(이하 '지자체'라고 일컬음)가 실행되면서 지자체의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디자인의 많은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자체의 활성화와 자립기반 및 다양한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육성에 따라 지역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방문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이미지 확립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물의 설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본으로 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도시로의 이미지표현은 지역이미지 확립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소속감 및 자부심확립을 통한 지자체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동시를 중심으로 지방도시의 지역 이미지 표현을 위한 가로경관 환경시설물 개선방안을 위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환경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지역 이미지표현의 환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안동시 전반에 조성된 가로환경시설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비교적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강변축제장, 안동역, 응부공원, 버스쉘터, 가로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환경시설물과 지역이미지의 표현에 관한 문헌 및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안동시 고유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특성 및 가로환경시설물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다각적인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역 이미지표현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지역의 특색 및 전통성과 관련된 가로환경시설물의 표현을 통해 지역민의 자부심 확대 및

지역의 아이덴티티 확립은 자방자치제시대에서 타지방과의 차별화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지역 활성화의 다양한 모색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인 가로환경시설물은 현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역의 계속적인 발전과 지역이미지 고취와 더불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을 의의를 둔다.

2. 가로환경디자인

2.1 가로환경시설물의 정의

최근 도시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환경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 가로환경시설물들은 공간조성 도구로서의 기능적 요구에서부터 안전성, 편의성, 깨끗성, 건강성, 전달성 등이 추구되고 있다. '외부공간에서 인간이 행위를 조절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는 환경시설물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원어로는 Street Furniture라 하며 다른 말로 Sight Furniture, 또는 Urban Furniture라고 한다. 가로환경시설물은 외부환경의 중요한 요소로써 각 지역마다 지역고유의 환경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정거리환경조성'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공적인 중요한 장소를 거론 할 때 가로와 더불어 언급되는 환경시설물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일부가 되고 공간 속에서 시각적 외형, 색채, 텍스처 등이 고려되어 조형적, 기능적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관광자원의 하나로 특정 공간조성 및 특정 가로환경시설물을 만들려는 계획들이 지방도시에서 점차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능성에 바탕을 둔 특색 있는 지역환경조성을 통해 도시환경 자체가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며 즐겁고 풍요로운 거리를 조성하고 특히 사회자본의 일환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2 가로환경시설물의 특징

인간과 가장 가까운 생활의 요소이며 그 지역의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가로환경시설물은 주변경관 및 이용자와 관련된 특징과 그 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영역으로 공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 가로환경시설물은 일상공간에서 이용자들의 눈높이 및 보행속도에서 인지되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이 더욱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로환경시설물에 따른 공간계획에 따라 유사지역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특히 가로환경시설물은 휴먼스케일과 조형적인 디자인 면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 특색을 비롯하여 미래까지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계획된 가로환경시설물들은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어 가면서 문화축제개발, 시가지 정비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 되고 대규모화 되어질 것이다. 공간은 그 자체로서는 인간의 행위를 수용하는 곳에 지나지 않지만 가로환경시설물이 삽입됨으로써 이용자들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공간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동안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무질서한 콘크리트 빌딩, 현란한 옥외간판 등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두되면서 옥외 환경조성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재인식되어졌으며 깨끗한 생활환경 추구를 위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환경시설물을 통해 이용자들의 행위가 유도되기도 하는 환경시설물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장소성을 가진 가구로서의 특징

환경시설물은 가로경관에 놓여지므로 장소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함께 공유한다. 장소가 가지는 행동적, 기능적 의미와 체험적 의미로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식적인 심미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가로경관에 놓여진 환경시설물은 그 지역이미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편의성과 장식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구현 할 수 있다. 예전의 환경시설물들은 단순한 기능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도시경관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의 경우 이용자들

이 기능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적 체험을 통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가로환경시설물의 본질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성, 목적성의 조화를 통한 이용자와 지역 환경을 조화시켜주는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2.2.2 상징성을 가진 시각적 측면에서 특징

가로 환경시설물은 그 형태의 조형미를 통한 연속성을 표출함으로써 독특하고 뚜렷한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체험과 함께 공간의 독자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시각적 측면에서 가로환경시설물들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이미지표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가로환경시설물들이 장소의 이미지에 맞도록 개성적이면서도 주변경관 및 이용자들에게 적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자칫 환경시설물 기본적인 기능면만 나타낼 수도 있다. 인간과 주변 경관 등과 같은 요소들의 동질성을 통하여 가로환경시설물의 통일된 이미지를 통한 지역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역이미지상징성은 랜드마크의 의미로 실재적으로 이용자가 가로 환경시설물과 유용성을 갖는 기능이 있다.

2.2.3 환경성을 가진 이용상의 특징

인간의 행위를 조절하고 보조하는 것이 가로환경시설물의 역할이므로 지역 내 가로환경시설물들은 건물, 주변 환경 등에 적절하게 조화되어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들과 빈번한 접촉을 가지는 것들이므로 크기뿐만 아니라 개방된 공간의 여유정도, 오브제 느낌의 계획을 통한 이용자들의 참여유발 등과 관계가 있다. 이렇듯 지역 구성원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태의 조형미와 시각적 감흥으로 가로환경시설물들의 집합형태가 의미 있게 계획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표현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깨끗함을 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인간생활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가로환경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중의 참여가 일어나는 가로환경시설물은 인간의 미적체험을 높일 뿐만 아

니라 교감을 통한 지역이미지 고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로환경시설물의 디자인 계획 시 설치되어지는 장소의 지역적 특성과 주변의 물리적 구성요소 들을 잘 파악하여 계획하여야 이용자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가로환경시설물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 정보, 편의, 퍼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능별로도 환경시설물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류를 시도해감으로써 보다 향상된 새로운 공간으로 연출 될 것이다.

2.3 환경시설물의 기능

2.3.1 실용적 기능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지역적 장소에 가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장소의 활동성을 더해준다. 또한 가로환경시설물의 경우 그 본질적인 기능에 분수, 조명, 놀이 등 다른 용도를 삽입시킴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휴식 및 새로운 공간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

2.3.2 공공예술로서의 기능

도시 공간 내 가로환경시설물의 형태는 단순한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형태의 조형미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유발을 고려한 디자인을 계획함으로써 공공집축이 활발해 진다. 이러한 가로환경시설물이 설치된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미적 체험이 가능해 지며 지역의 특정한 장소로서의 이미지연출에 매우 효과적이다. 나아가 이용자들과 공간을 연결하는 촉매역할로 3차원의 대상물로서 이용자가 공간을 의식적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렇듯 인간의 생활을 보다 퍼스하게 함으로써 나아가 지역민의 유출을 막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게 된다.

2.3.3 랜드마크 및 미적기능

도시 공간 내 가로환경시설물은 크게는 환경조형물과 같은 맥락으로 도시 내 랜드마크의 기능을 갖는다. 공간을 통한 하나의 접점으로서 역할을 하여 시각적인 방향감과 이미지표현을 제공해 준다. 또한 기능적인 면을 바탕으로 한 조형미의 표현은 가로환경시설물들 사이에 일정한

통일감과 대비효과를 주게 되어 시각적인 다양성과 복합성을 표출하고 공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2.4 가로환경시설물의 분류

2.4.1 기능에 따른 분류

가로환경시설물들은 영국의 COID(Counal Industrial Design)가 출판한 Street Furniture form Index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High Mast Lighting(높은 기둥 조명)
- Lighting Columns Doe Approved(환경국 인가 조명)
- Lighting Columns Group A(조명등 A)
- Lighting Columns Group B(조명등 B)
- Amenity Lighting (연출조명)
- Street Lighting Lanterms(가로등)
- Bollards(정차장)
- Litter Bin Gnt Bins(휴지통과 모래함)
- Bus Shelters(버스쉘터)
- Outdoor Seats(옥외벤치)
- Children's Play Equipment(어린이 놀이시설)
- Poster Display Units(광고물기둥)
- Road Signs(도로표지)
- Outdoor Advertising Signs(옥외광고 사인)
- Guard Rails, Parapet, Fencing and Walling
(가드레일, 난간, 울타리, 벽)
- Paving and Planting(포장과 식재)
- Footbridges for Urban Roads(육교)
- Garages and External Storage(차고와 옥외광고)
- Misoellany(기타)

이상의 분류로 보아 가로환경시설물은 환경조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옥외생활에서 위의 분류에 의한 것들이 필요하며 이들을 요소로 하여 외부환경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2.5 인간의 행위에 따른 분류

가로환경시설물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12분야로 분류되어지며 각 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함께 계획되어지며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추가 되는가에 따라 그 장소의 특징이 결정지어진다. 이렇게 나누어진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가로환경시설물의 기능별 분류

분류영역	가로시설물
휴식계	의자, 벤치, 헬터, 옥외용 테이블 등
매점계	자판기, 매표소, 신문잡지매점, 복권매점 등
정보계	안내사인, 유도사인, 식별사인, 규제사인, 전화박스, 우체통, 안내판 등
조명계	가로조명(기능조명), 장식조명(연출조명)
교통계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육교, 보행자데크, 아케이트용 쉘터
행사계	행사용 임시옥외 시설물, 노점 등
놀이기구계	그네, 미끄럼틀, 모래터, 철봉, 회전달리기, 정글짐, 놀이조각 등
관리계	도시 하부구조가 밖으로 돌출된 것, 전신주, 소화전, 환기구 등
신체장애자계	장애인용 바닥재, 경사로, 난간, 승강기 등
조경계	석재, 물, 조각, 쇼케이스
위생계	휴지통, 화장실, 세면장, 음수대

12가지 분류 중 휴식계는 비교적 다른 가로환경시설물에 비해 이용 시 이용시간이 길며, 조명계는 야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낮 동안의 모습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계는 정보 분야를 사인관련, 통신관련, 안내관련으로 구분하며 옥외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신체장애자 분야 계획 시 장애자 외에도 노약자나 어린이처럼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대상자도 포함시켜 계획한다면 보다 이용자 중심의 가로환경시설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경분야의 경우 가로환경시설물 계획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환경시설물의 심리적 구성요소

3.1 인간척도

가로환경시설물이 설치되어지는 환경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들의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그 크기가 결정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가로환경시설물의 크기가 환경의 규모에만 치중되어 계획되어진 경우에 그 공간의 이용자들에게 기능적, 심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능별로 다양하게 분류되는 환경시설물은 이용자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지각은 주변공간의 전체와 가로환경시설물을 비교하여 인지되나 마지막으로는 인간 자신의 크기와 비교하여 인지된다. 그러므로 인간 척도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규모'로서 인간 자신이 크기와의 비례관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3.2 복잡성과 단순성의 형태론

가로환경시설물의 이용자들은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으므로 형태에 대한 다양한 미적 선호가 나타나게 된다. 복잡한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단순, 명료한 형태가 좋다고 주장하는 견해와 시각적으로 풍부한 환경이 인간에게 좋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속에서 어떠한 형태를 도출하기보다는 환경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 그리고 이용자들의 생활 형태에 기초를 둔 형태도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놓여지는 위치에 따라 다양성으로 그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 형태 자체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나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복잡성이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될 수도 있다. 즉 우리의 환경속의 환경시설물은 그 크기에 인한 시각적 단절을 피하고 다양성을 지닌 단순한 형태의 공감각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3 재료와 색채

환경시설물의 재료는 형태뿐만 아니라 질감, 내구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주변경관과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료와 색채는 이용자들에게 심리적인 페적감과 친밀감을 유도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간으로의 유도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므로 지역공간과 이용자들에게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색채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그 공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4. 지역이미지 표현적 특성

4.1 지역이미지표현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

현재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디자인이 접목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한 제품 및 광고 표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여가활동, 생활환경, 의사전달체계 등에서도 그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 디자인의 범위확대에 따라 인간의 생활 전역이 디자인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처음 계획할 때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된 예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건물계획 시 주변공간계획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로환경시설물 계획 시 종합적인 디자인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환경보존과 생태학적 디자인 개념이다.

지방자치체들은 최근 들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고유의 이미지 확립, 특산품개발, 꽤적하고 아름다운 지역고유의 생활 공간 조성, 특색 있는 가로환경시설물 개발계획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시대에서 디자인이 가지는 의미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디자인을 통해 지방의 고유 이미지 확립을 통한 지역민화합과 이를 기초로 한 타지역과의 경쟁력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분야의 적용 중 특히 가로환경시설물디자인은 타지방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지방고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체의 지방고유의 도시환경 조성에 중요한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적인 접목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2 전통적인 소재를 활용한 지역이미지 표현

각 지역마다 지역의 이미지 확보와 주민들 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지역고유의 장소나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 새, 꽃을 소재로 하여 지역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들은 지역주민들이 늘 공유하던 것이므로 친밀감이 높아 더욱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지역이미지를 상징하여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소 소재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오는 인물이나 이야기속의 인물을 소재로 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안동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문화유적지가 많을 뿐 아니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일컬을 정도로 전통적인 부분이 많이 공유하는 곳이므로 많은 지역공간이 전통적인 소재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소재의 표현의 경우 자칫 타 지역의 전통적 이미지와 혼동하여 혼돈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전통적 소재의 유사성에 따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세워둔 환경시설물의 경우 거의 지역이미지상징에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곳이 빈번하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4.3 다양한 오브제에 의한 표현

가로환경시설물을 통한 지역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오브제의 다양한 도입이다. 가로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지역고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가로환경시설물은 설치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써 이러한 환경시설물의 오브제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용자들에게 형태 및 기능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된 오브제형식의 가로환경시설물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체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는 것이다.

4.4 장소의 마케팅과 브랜드전략을 통한 표현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개성이 다른 지역과 구분될 때 그 지역 고유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특정한 이미지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을 브랜드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소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상징하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유명드라마 로케장소를 공개하여 도시 내 주요한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용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듯 장소의 이미지화를 통한 마케팅과 브랜드화가 소재가 되어 가로경관 환경시설물이 보다 활성화 되는 요인이 된다.

5. 가로환경시설물 비교 및 분석

5.1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사례 분석

경상북도 중북부에 위치하며 1995년 안동군과 통합시를 이룬 안동시는 유교문화의 본고장이며, 전통문화의 유산이 풍부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다. 이렇게 많은 유물과 유적관광지가 있는 안동은 자자체 내에서 전반적인 가로환경시설물을 지역아이덴티티확립과 타지방과 차별화 정책으로 인식하면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정착화 방안으로 타지방과의 차별화 정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디자인되어 있다.

지자체들이 거리환경시설물을 지역 이미지 확립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색 있는 자자체로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가로환경시설물, 상업지구 간판, 특색 있는 거리조성의 계획에 있어서 안동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제작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되어진 축제장, 음식의 거리, 공원 등의 가로환경시설물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문화행사 유치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거리모습의 변화를 볼 수 있으나 지역의 역사 및 문화 그리고 설치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안동 지역 방문 시 대중들이 가장 먼저 안동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안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안동역의 가로환경시설물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최근에 계획 된 웅부공원과 강변축제장의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먼저 안동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의 상태를 평가요소의 분석관점을 토대로 조형적 요소 환경적 요소, 사회적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표 2> 평가요소의 분석관점

영역구분	분석관점	
환경적 요소	환경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순화에 의한 동질성과 총체성 형성 - 대비에 의한 개조에 의한 조화, 강조, 승화 - 새롭고 특성 있는 독특한 환경의 연출 - 환경특성을 극대화한 조형 공간이 창출 - 배경, 전경, 종합공간과의 현상학적 상관관계
조형적 요소	조형 역할 형태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의 공간, 양감, 절감, 색채요소의 적절성 - 형태의 일반원리와 특수원리 분석 - 형태와 외부환경조형의 특성 분석 - 촉각적 유행과 접근성과 개방성 추구 - 외부환경공간과 형태와의 적절성 검토 - 시야의 명시도, 인지도, 형태 의 명료성
사회적 요소	시각 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요소의 체순과 부적격성 검토 - 조형형태의 시대적 상황이 저해 요인 - 원리에 미흡하거나 상치되는 요인 - 자극에 의한 심리적 불안 - 형상에 의한 조형 거부감과 시각공해



(그림 1)

전화부스



(그림 2)

안내판 A



(그림 3)

대기공간



(그림 4)

터미널앞



(그림 5)

택시승강장

<표 3>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분석 -
시외버스터미널

조형적 요소	기능성	-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시야의 명지도, 인지도, 형태의 명료성 등이 결여
	조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환경과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가로환경시설물 (그림 2, 3) - 형태의 표현에 있어 외부환경조형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그림 3, 4) -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판 계획 전무 (그림 3, 4, 5)
환경적 요소	재료 적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특성을 극대화할 만한 조형적 형태들이 결여 (그림 1, 3, 4, 5) - 새롭고 특성 있는 지역이미지표현의 재료의 상관관계 결여 (그림 2, 3, 4)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이 시내 중심가이긴 하지만 환경적인 연계성 및 종합적인 협상 학적 상관관계가 고려되어 있지 않음 (그림 1, 3, 4, 5) - 쾌적한 이미지의 공간조성이 부족 (그림 2, 4)
사회적 요소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에게 축각적 거부감과 형상에 의한 시각장애 초래 (그림 1, 3, 4, 5) - 설치되어있는 시설물이 낙후되어 안동방문객들에게 불쾌감 초래 - 안동의 이미지를 전달할만한 사항 전부

두 번째 사례분석지로는 최근에 계획되어진 강변축제장의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매표소



(그림 7)
벤치



(그림 8)
전화부스



(그림 9)
거치대



(그림 10)
펜스



(그림 11)
볼라드



(그림 12)
조형물 A



(그림 13)
조형물 B



(그림 14)
가로등



(그림 15)
휴식공간 A



(그림 16)
휴식공간 B

<표 4>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분석 -
강변 축제장

조형적 요소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에 기본을 둔 발전된 형태들이 많음.
	조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공간에 비해 최근에 조성된 공간으로 환경특성을 극대화한 조형 공간창출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들이 많이 있음(그림 9, 15) - 새롭고 특성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노력이 많이 나타나 있으나 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그림 14, 15) - 환경공간과 형태와의 관계성 및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
환경적 요소	자료 적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재료면에서는 주변경관 및 다른 가로환경시설물과 연계성 결여 (그림 10, 14) - 자전거거치대의 경우 주변의 수목과 이질감이 있는 재료로 마감(그림 9). - 자연요소가 많은 같은 공간에 서로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형태의 공간, 색채요소 등에 거부감 조성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므로 주변에 수목들이 많으면 나무와 돌을 주재료로 사용하였으나 가로환경시설물과 주변경관과의 명료성이 부족(그림 13)
사회적 요소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공간과 달리 이용자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기존의 가로환경시설물과 차별화 된 공간을 체험 (그림 15) - 조형물의 경우 인간척도가 무시되어 있어 관조자가 심리적으로 적대감 형성(그림 10) - 이질적인 재료 및 형태에 의한 시각적 장애는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공

		<p>간에 대한 다양한 체험의 저해 요인. 진입로 경우 가로등은 인간적도를 고려하였으나 주변의 이미지와 재질 및 형태 선택면에서 문제점(그림 11,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거치대의 경우 공간규모에 비해 수가 매우 적었으며 수복사이에 있는 형태와 재질은 이질감의 요인(그림 9)
--	--	--

세 번째 사례지역인 안동역은 첫 번째 사례지역과 같은 백락으로 안동지역이라는 곳의 첫번째 이미지를 만드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비교했을 경우 좀 더 정리되고 시설들을 정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자체 고유의 이미지 확립을 통한 방문객 수의 증가와 이를 기초로 한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유치를 위해 특색 있는 공간조성에 대한 자체의 노력에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안동역의 가로환경시설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6)
블라드



(그림 17)
입구전경



(그림 18)
승강장



(그림 19)
휴게공간



(그림 20)
전화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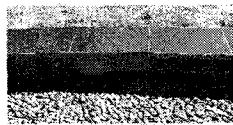
(그림 21)
안내판

		<p>고려되지 않은 상태임(그림 16, 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 앞 공간의 개방성에 의해 접근성이 저해되는 요소가 결여(그림 17)
환경적 요소	재료 적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설물마다 재료와 색채에 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그림 16, 17, 18, 19, 20) - 휴게공간의 경우 대비에 의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나무와 돌의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형태의 단조로움으로 인한 종합공간으로서의 상관관계가 결여(그림 19)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 및 환경특성을 극대화한 조형공간의 필요성이 요구 -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전화부스의 경우 색채를 통한 이미지작업이 필요(그림 20) - 자연친화적인 환경공간조성이 필요(그림 19)
사회적 요소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상에 의한 조형의 아름다움을 통한 이미지 확립이 필요 - 이용자들에게 고정관념의 기능적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의 공간으로 끌어들일 요소가 요구(공간의 다양성 측면) - 안내사인에 대한 통일성 및 명시도, 인지도 등을 고려한 색채계획이 필요

네 번째 사례분석지로는 최근에 조성된 웅부공원의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공원 내 가로환경시설물들이 다양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다양성과 연계성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림 22) 파사드



(그림 23) 벤치



(그림 24) 공원전경



(그림 25) 공원상징물

<표 5>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분석 -
안동역

조형적 요소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들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만 지니고 있음(그림 16) - 색 채요소에 의한 인지성기능이 결여(그림 19)
	조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의 표현에 있어 심미성은 전혀

<표 6>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분석 -
웅부공원

조형적	기능성	- 다양한 종류의 가로환경시설물의 설
-----	-----	----------------------

요소	조형성	치가 부족함.
		-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 하였으며 안동 고유의 전통성의 형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다른 가로환경시설물들의 현대적 접목이 필요함(그림 23)
		- 공원 내 설치된 조형물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적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조형미가 요구(그림 24)
환경적 요소	재료 적용성	- 주변과의 현상학적 상관관계 확립이 요구 - 기존의 벤치 형태에서 벗어나 조형미와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 형태로 표현(그림 23)
	환경성	- 나무, 돌, 타일들을 사용하였으며 타일로 마감 처리한 파사드는 자연적인 다른 요소들에 비해 이질감을 느끼게 함(그림 22) - 자연친화적인 공간조성으로 환경순화에 의한 동질성과 종체성 형성이 우선되어야 함 - 이용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재료의 환경적 요소가 부족함.
사회적 요소	이용자	- 이용자를 위한 가로환경시설물들은 벤치만 조성되어 있어 시설 확대가 요구 - 공원경제지역을 표현한 파사드는 이용자들에게 안동을 알리고자 하는 사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각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이용자에게 직접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오브제적인 역할이 없음 (그림 22)

마지막으로 안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쉘터의 형태와 여러 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형태를 보더라고 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거의 유사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가로환경시설물의 경우 지역이미지의 확립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6)
버스쉘터 A



(그림 27)
버스쉘터 B



(그림 28)
파고라



(그림 28)
가로등 A 가로등 B 가로등 C

<표 7>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분석 -
버스쉘터, 가로등

조형적 요소	기능성	- 밤과 낮의 기능에 따른 시각적 요인 고려 - 버스쉘터는 이용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시각적, 촉각적 자극요소가 필요
		- 일관성이나 연계성이 결여 및 다소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형태
환경적 요소	재료 적용성	- 기존 사용되어지는 재료
	환경성	- 가로등의 경우 주변경관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변경관과의 연계성이 결여
사회적 요소	이용자	- 가로등 - 이용자들에게 조명의 기능 이 외에도 새로운 접촉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 - 버스쉘터는 지방고유의 이미지가 요구되며 색채를 통한 명료성 및 이미지의 인지성 확립이 가능한 요소

5.2 국외가로환경시설물사례

국내보다 먼저 지자체가 정착된 국가의 가로환경시설물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방문객들이 그들이 특별한 곳에 도착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공간을 계획하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 올랜드 시의 경우 진입부터 디즈니월드까지 도로 사인을 보면 처음엔 미키마우스의 얼굴과 손이 작게 나타나다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조금씩 크게 나타나게 계획하여 방문자들에게 그 지역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게 한다.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의 경우 그 공간의 미답게 특정부분에 물놀이만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 조성을 통해 방문자에게 그 곳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확립하며 음수대의 경우 동물의 입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용자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들의 얼굴을 둠물의 입속에 넣어야 함으로써 새로운 체험을 통한 다양한

적용의 기회를 유추하게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그 지방의 가로환경시설물을 보면 어떤 지역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주 컨셉으로 하여 모든 것들을 나무를 접목시켜 디자인함으로써 나무와 관련 있는 지방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놀이 공간에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 발바닥 모양을 통한 길 유도 사인의 계획과 샷강형태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에서 다양한 미적 체험과 개인별로 다양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공간과 디자인접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례이다.

5.3 조사내용 비교분석

위에서 살펴 본 안동시 가로환경시설물 현행 사례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역이미지 표현을 위한 디자인 가치관과 이를 정립하기 위한 조형적 요소 그리고 앞으로의 디자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모든 지자체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정착을 위한 지역 관광 상품홍보 및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꼭 필요한 가로환경시설물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안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의 문제점은 첫째, 주변경관과 가로환경시설물의 재료 및 색채 선택에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가로시설물 들 상호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지나치게 전통성에 입각하여 표현함으로써 현대적인 다른 공간과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최초 조성된 계획공간들의 경우 인간 척도를 고려하지 않은 가로환경시설물들이 많다. 이제까지의 획일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방의 문화와 특징을 접목시킨 디자인이 표현되어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디자인화 되어지는 것이다. 가로환경시설물디자인을 통한 지역 이미지 확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첫째, 색채 및 형태의 접근에 있어 지역의 통합 체계화된 가로환경시설물들이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가로환경시설물 중 그래픽개념의 사인 등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에 의해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안내판 등 지자체가 형태를 특색

<표 8> 지역이미지표현을 위한 가로환경시설물의 방향

조형적 요소	기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용성과 기능성을 목표로 하는 감성 교감적 기능 - 기능중심적인 간결성 - 상징적 의미를 위한 감성적, 적극적 일관성 - 일시적 형태에서 이용자 중심의 심미성 - 형태의 조형미와 색채의 심리적 결합을 통한 연계성
	재료 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틸 장르적인 소재 적용 - 재활용 재료에 대한 연구
환경적 요소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과의 조화적인 디자인 - 자연친화적인 기술 표현으로 환경 친화적인 공간체험의 기회 부여 - 그린디자인에 관한 이용자들의 관심 확대 - 타 지역과 구별되는 장소의 이미지화를 통한 마케팅과 브랜드화
	사회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편리성 중시 - 인간중심의 디자인 (인간척도를 고려) - 다양한 축면에서 미적, 문화적 체험에 적극적인 참여 유발

있게 할 수 있는 디자인접목이 허용되어야 한다.

<표 9> 차별화된 지역이미지 표현을 위한 디자인가치관

재료적인면	그린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소재의 활용
정보적인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의 동시 공유
사회적인면	지역아이덴티티 확립을 통한 지역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문화적인면	생태학적 감성주의, 차별화된 문화 공유
환경시설물 특성면	인간중심의 휴먼스케일, 연계성 고려

셋째, 주변경관에 대한 고려를 통한 재료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오는 재료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간들이 늘 사용하는 공간에 조성되는 부분이므로 무엇보다 인간 척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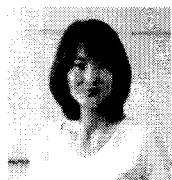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및 지역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 방문객유치를 위해 지역고유의 특색 있는 공간조성에 힘쓰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환경조성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특징을 가로환경시설물디자인에 반영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 환경시설물과 지역이미지표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안동시 가로 환경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가로환경시설물은 다양한 거리의 가구들로써 육외공간에 설치되어 있지만 안동시 가로 환경시설물은 버스쉘터, 가로등, 계시판, 공중전화부스, 파글라, 벤치, 자전거 거치대 등으로 한정되어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양성의 부족, 의미의 무관함, 가로환경시설물과 도시주변경관과의 레이아웃 문제, 가로환경시설물들이 이루는 연속성의 단절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이미지표현이라는 가로환경디자인이 도입은 표현방법, 색상, 형태, 조명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이것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지역아이덴티티구축에 적합하게 일관성을 가지도록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안동시 내의 가로환경시설물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이미지로 전통문화유적지가 많은 정신문화의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전통성에 기본을 두고 현대적이고 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그 결과로 첫째, 지역의 역사적 환경, 지역의 특성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고유의 전통미를 발굴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을 통해 전달내용의 이미지에 적합한 형태로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많은 지자체들이 다른 지역의 가로환경시설물을 모방하여 설치하고 휴먼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가로환경시설물들의 주변경관과의 다양한 연계성에 바탕을 둔 인간적도 및 심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이미지의 함축적인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경관과 가로환경시설물이 유기적인 연결성을 고려하여 형태적으로는 자연이 주는 이미지

반영하고 재료 및 색채 선택 시 최소한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안동 고유의 색채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넷째, 가로환경시설물들의 위치는 사용자들의 형태를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곳에 보다 효과적인 가로공간이 연출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자체시대에 요구되어지는 환경디자인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관성 있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지자체의 디자인에 관한 심도 있는 관심 및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적용사례가 늘어나 새로운 지역이미지 표현의 방법으로 가로환경시설물 조성을 위한 많은 투자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진일, 공공환경디자인론, 중앙M&B, 1998.
- [2] 유수상,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그래픽 심벌 사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호, 1998.
- [3] 이명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각디자인 연구, 전국대학술지, 1988.
- [4] 이호성, 한국의 가로시설물과 디자인 정책에 관한 연구, 1986.
- [5] 이선아, 도시환경에 있어서 상징성 표현을 위한 디자인 모형사례연구-전시문화공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1996.
- [6] 고성종, 고필종 공저, 도시와 환경디자인, 미전사, 1994.
- [7] 김화윤, 고궁내의 가로시설물에 관한 연구, 1995.
- [8] 양호일, 환경디자인과 행태, 유림문화사, 1995.
- [9] 이명호, 속거리의 미학, 태림출판사, 1986.
- [10] 윤도균외, 건축·환경디자인의 원리와 전개, 기문당, 1988.
- [11] 박철수, 지방자치화시대의 도시건축, 세진사, 1997.
- [12] 김경준(역), 디자인에 관한 반응적 환경, 국제출판사, 1990.
- [13] 채수명, 디자인마케팅, 국제, 1993.
- [14]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률사, 1989.
- [15] Elements & Total Concept of Urban Pavement Design. Graphic-sha Publishing co. Japan.1992



최계영

1995년 :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술
학석사)

2007년 :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
공학과 박사과정)

1996년~2002년 : 대구산업정보대학 산업디자인과 겸
임 교수

1997년~2002년 : 포인디자인 설계실장

2002년~2006년 : 가톨릭상지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2007년~현 계 : 경남정보대학 스페이스디자인계열
교수

관심분야 : 공간에서의 색채인지, 시선추적을 통한 실
내공간의 인지빈도에 따른 가상공간계획, 크
기에 따른 시지각의 형태 등